

‘빛의 속도’가 낳은 한국출판의 명암

필자 · 출판사 · 독자 사이의 거리 소멸... 지나친 미국화는 경계해야

인터넷과 전자우편이 들어오면서 예전에 비해 출판사와 필자 · 독자간의 의사소통 기간이 혁명적으로 단축됐다.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 외국서적에 대한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면서 번역서와 관련한 출판사의 의사결정 과정도 짧아졌다. ‘빛의 속도’로 일컫는 인터넷과 출판이 만나면서 빛과 어둠이 교차한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이 기존 출판의 형태를 바꿔놓으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시점에서는 속도에 탄축을 걸고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론과 부정론 간의, 좀더 치열한 논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논쟁과는 별도로 시대의 대세에 따라 출판계는 인터넷과의 연결고리를 점차 늘려가고 있다. 긍정론도 부정론도 아닌 제3의 지점에서 인터넷과 출판은 만나고 있는 것이다.

‘빛의 속도’로 오가는 원고

최근에 발간된 《현대문학》 1월호는 줄리언 반즈 · 미셸 투르니에 · 오이겐 고펜링 등 전세계 22명의 작가들에게 설문조사한 특집 <새로운 천년과 문학의 미래>를 수록했다. 이 특집은 두가지 점에서 흥미를 끈다. 하나는 우리 출판이 동시대성에 눈떴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 전자우편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이다. 《현대문학》에 따르면, 이전에는 업무도 내기 힘들었던 이 특집이 가능해진 까닭은 전자우편 덕택에 설문과 회신과정이 많이 단축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 동시대 외국필자의 글을 잡지에 수록한 것은 《창작과비평》이 앞섰다. 그간 《창작과비평》은 가라타니 코진 · 한사오공 · 아리엘 도르프만 등 외국필자의 글을 소개했다. 물론 대부분 외국 잡지에 실렸던 글들이지만, 글 선정에서 인쇄까지 걸리는 시간이 예전에 비해 현저하게 단축된 것은 전자우편 덕택이다. 창작과비평사 유용민 편집부장은 “아직까지 청탁에서 편집까지 모두 도맡지는 못하지만, 실무차원에서 외국필자와의 연락에 전자우편은 상당히 편리하다”고 말한다. 특히 국내상황에 맞게 내용을 손질해 달라는 부탁이 가능한 것은 전적으로 전자우편 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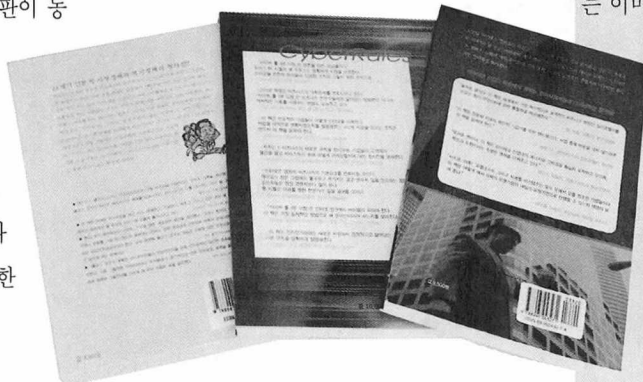
이런 경우는 다소 특수하다고 해도 대부분의 국내필자들 역시 전자우편으로 원고를 보낸다. 현암사 형난옥 주간의 말처럼 “필자와 출판사 사이의 인간미는 많이 사라졌”지만 그만큼 제작

기일이 단축됐다. 또 ‘빛의 속도’로 송고시간이 단축되다 보니 출판사측의 개고 요청도 쉽게 받아들여지는 편이다. 송고를 둘러싼 불편이 그만큼 감소됐기 때문이다.

올해 2월 창간 예정인 《아웃사이더》는 전자우편으로만 편집회의를 하는 잡지다. 이 잡지는 원래 파리의 흥세화씨, 베를린의 진중권씨 등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전자우편 편집회의가 불가피했다. 전자우편이 아니었다면 이 잡지는 출간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다른 잡지에서도 전자우편을 통한 편집회의는 점차 보조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매주 한번씩 기존 방식의 오프라인회의를 유지하는 《창작과비평》 역시 편집위원 중 몇몇은 지방에 거주하기 때문에 전자우편은 가장 유용한 통신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전자우편이 지리상의 거리를 거의 지워버리는 통신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출판계에서도 잡지처럼 그때 그때 시의적절한 외국 필자의 글을 모아 출간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

기획과 편집에 직접 관여하는 독자

사실 이런 작업이 전자우편 때문에 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일정한 주제 아래 스티븐 제이 굴드 · 장 들뤼모 · 장 클로드 카리에르 · 움베르토 에코 등 세계 저명학자들의 글을 모아서 출간한 《시간의 종말》(글리오)의 예를 보듯이 서양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방식이다. 이 책은 프랑스출판



번역서 뒷면에는 흥행의 보증수표처럼 외국서평지와 서평자들의 이름이 나열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의 시각이 결코 우리 독자의 시각과 같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인터넷을 통해 최신정보를 접하는 편집자들은 종종 외국서평지의 시각을 과신하는 우를 저지른다. 사진은 최근 출간된 번역서의 뒷면.

인터넷과 전자우편은 출판 기획과 편집 과정에 '빛의 속도'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출판사는 필자·독자와 즉각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기획과 편집에 반영할 수 있다. 이런 피드백 과정은 책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으로 변화시켰다. 사진은 한 출판사의 홈페이지를 검색하는 모습.



사에서 기획하고 프랑스 기자가 미국·이탈리아·프랑스의 학자들과 인터뷰해 엮었다. 물론 인터넷이 아니라라도 서구사회 전역을 포괄하는 서구출판의 특성상 이런 기획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 출판의 기획이 아직까지 국내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자우편은 우리 출판이 인식하는 작업 영역의 경계선을 전세계로 확장시키는 촉매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우편이 필자와 출판사 사이의 지리적 거리를 소멸시켰다면, 인터넷은 출판사와 독자 사이의 시간적 거리를 없애버렸다. 전통적 방식은 독자가 서점에서 책을 구입해 읽고 소감을 적은 독자카드나 편지를 보내면 재판 작업 때나 다음 기획에 반영하는 과정을 밟는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방식은 이 같은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확실히 줄였고, 그 과정에 모든 정보가 다른 독자에게 공개된다.

회원이 15만명에 달해 국내 출판사 인터넷 홈페이지로서는 가장 광범위한 회원이 가입한 영진닷컴의 게시판은 신간서적의 오자나 틀린 점, 새로운 기획아이템에 대한 독자의견이 수시로 게재된다. 기존의 독자카드 시스템이 독자 개인과 출판사간의 비공개적인 의사소통이었다면,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방식은 공개적인 의사소통이라 출판사는 즉각적으로 독자들의 요구에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영진닷컴은 원래 게시판 전달 사원을 따로 뒀지만, 밀려드는 독자문의의 감당할 수 없어 각 팀에서 분담해 답변을 게재하고 있다. 영진닷컴의 본부기획팀 심효정씨는 “당연히 독자들의 목소리가 책의 내용과 형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독자와 출판사간의 즉각적인 피드백은 예전과 같은 책의 제작과정에 독자의 선택이 깊숙이 개입하는 계기를 낳았다.

최근 한 문학상 수상작을 둘러싸고 해당출판사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벌어진 해프닝은 인터넷 시대의 출판이 놓인 새로운 풍경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라는 공간 덕분에 독자들은 문학상의 권위에도 도전할 수 있을 만큼 그 힘이 성장했다. 예전처럼 단순히 일부 독자의 반발이라고 치부하다가 문제가 견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진다. 모든 논의과정이 공개되기 때문에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아무리 권위 있는 평론가의 의견이 덧붙여져도 소용이 없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바 있는 창작과비평사 염종선씨는 “인터넷으로 접근하는 독자들은 기존 독자와 전혀 다르다”고 말한다. 더 이상 출판사의 일방적인 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터넷상에서 독자와 출판사는 같은 권위로 존재하는 것이다.

인터넷의 등장이 우리 출판 영역을 세계화하고 필자-출판사-독자 사이의 거리를 혁명적으로 줄이기는 했지만, 마냥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 신생출판사로서 국내 필자보다는 해외서적의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리드북의 전진배씨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모든 출판사에게 개방되다 보니 아무런 정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 탓에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 많이 단축된 점”을 가장 큰 폐해로 꼽는다. ‘거리가 소멸된’ 최신정보가 접속하는 모두에게 ‘빛의 속도’로 전해지다 보니 다른 출판사가 해외신간을 선점할까 하는 우려에서 책을 검토해 출간하는 과정 역시 ‘빛의 속도’를 방불케 한다는 점이다.

미국식 정보상업주의는 경계해야

이때 가장 큰 문제는 책을 검증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외국서평지의 평가에 많이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출판계에 영어해독자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미국시장의 동향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큰 문제지만, 그 대부분이 미국의 베스트셀러에 치우쳤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심지어는 아마존에 올라 있는 독자서평마저 공인된 서평인 양 광고나 책 뒤에 소개되는 방식은 확실히 문제가 많다. 이는 정보의 소통이 즉각적인 인터넷 시대 우리 출판의 어두운 그늘이다. 이 점에 대해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 소장은 “인터넷을 통해 미국식 정보상업주의가 만연했다”고 지적하고 “오랜 역사적 경험을 축적한 인간존재에 대한 담구 없이 정보에만 가치를 두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성찰은 정보의 속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주장이다.

인터넷은 출판에 독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텍스트를 독자의 요구에 따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독자와 무관한 외국의 정서를 경쟁적으로 수입하는 부작용도 낳았다. 가치중립적인 기술을 두고 일회일비하는 일은 경계할 일이다. 하지만 성찰 없이 기술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태도는 더 경계해야 한다. 인터넷 시대로 접어든 출판이 인터넷에 대해 좀더 사유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 김연수 기자